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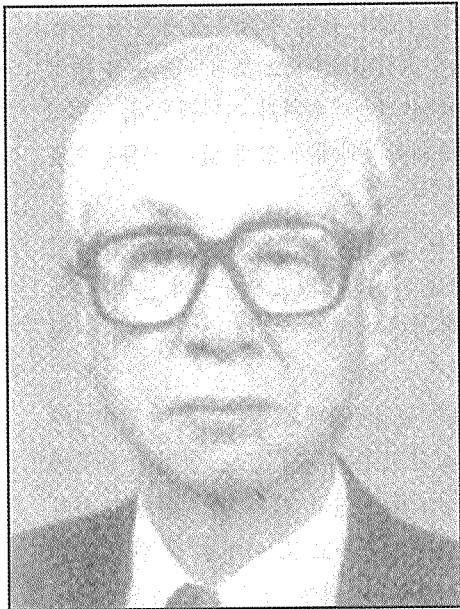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선문대 총장직과 1994년 세계평화교수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윤세원은 1922년 10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0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7년 서울대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57년에는 미국 알곤대 대학원을 수료한 이후 51년에서 58년에는 서울대 부교수, 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부장, 61년 경희대 교수, 68년 경희대 산업대학장, 79년 미국국제문화재단 이사 역임, 90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피선후 98년 이후 현재까지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선문대학교 박물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원자력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54년부터이다. 그 당시 국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4년 7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왔고, 195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국제포괄 (안)」을 제창함과 동시에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해서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때부터 원자력에 관한 국제 움직임에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자주 생겼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이 윤세원이다.

당시는 원자력에 관한 전문서적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때라 문교부 기술교육국장이었던 박철재가 1955년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Research Reactor」을 중심으로 Study Group을 만들어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세미나도 하는 한편 우리의 원자력법과 원자력행정체제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시작했다.

1956년 1월경에 원자력법의 초안을 만들어 문교부 기술교육국 안에 원자력과를 신설하자는 의



윤세원

안을 내어 가결되었고, 1956년 3월 9일자로 원자력과가 탄생하였다. 이 때에 미국의 Argonne연구소로부터 원자력연구생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윤세원이 파견되었고 57년 10월 1일 원자력과장으로 임명되어 원자력법과 직제를 만드는 일,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유학생 파견, 예산확보, 부지선정, 원자로구입등의 일을 했다. 이후 1958년 2월 원자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원자력원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원자력원의 청사는 1959년 1월 26일에 체신부 저금관리국 청사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경위는 돈이 안 드는 기존 정부청사나 정부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윤세원 때문이었다.

청사를 얻은 후 4월 15일에 제1차 전문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기초연구 관계, 원자로연구 관계, RI이용연구 관계로 구분되어 주로 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에 응하였다.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예산항목에 연구보조금, 연구수당, 위험수당을 넣었고 당시 우리나라 예산항목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처음 시도된 바라 재무부와 많은 언쟁을 했었다.

처음 책정되었던 연구보조금은 약 1억환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로 1957년 7월부터 원자력원 주최로 매년 원자력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제1차때 발표된 논문이 40여편이었으며, 이것으로 원자력분야 연구에 아주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초에 좋은 연구진들이 연구소에 많이 모임 수 있었던 것은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 1급 및 2급 연구관의 T/O 실현이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해외에 교육훈련을 위해 보내는 예산을

책정하여 학위수여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미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유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의를 받아 냈다.

원자력연구소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5부장관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이것은 원자력사업에 관한 예산집행과 중요한 사항들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부흥장관, 문교장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으로서 당시 원자력사업에 관한 행정만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 졌었다. 연구소 부지로는 안양 근처와 성남시쪽의 남성대위치가 거론됐으나, 59년 2월말쯤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옆에 있는 공릉동으로 정해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에 원자력연구소 간판을 건 것이 3월 1일이었고 연구소의 본부는 4호관으로 사용하면서 우선 동위원소연구동을 건립하였다.

1958년 2월 원자로구매와 관련해 한미원자력쌍무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고 또 이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연구용원자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국이 35만불을 보조하고 한국정부도 동일 액수인 35만불을 같이 내는 조건이었다. 결국 원자로건설사업을 위해 70만불이 확보된 셈이었다.

당시에 연구용원자로는 미국밖에 없었으므로 구매단을 구성해서 58년 8월 16일 미국을 방문했다. G.A.사와의 TRIGA MARK II 연구용원자로의 구매계약은 58년 12월초에 이루어졌다.

초창기의 원자력연구소는 소위 419혁명이 일어

나면서 새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원자력원장이 바뀌는 등 행정 및 분쟁에 관한 문제가 생겨났다. 원자력원장이 김양수씨로 교체되고 원자력연구소장은 박철재박사에서 김동일원자력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2개월만에 다시 윤세원의 추천으로 최상업씨로 교체되었다.

윤세원이 연구소를 그만둔 것은 1961년 8월 3일이다. 1961년 5.16혁명이 나고 동년 6월 11일에 김양수원장 대신 오원선(당시 해군대령)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연구관 여섯 사람을 면직시키는 인사를 실시하였고 윤세원은 잠재성 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그만두게 해 달라라는 의사와 함께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남기고 연구소를 떠났다.

그만 둔 다음에도 연구소에 가끔 나갔으나, 1962년 3월에 경희대학교에 물리과가 신설되면서

대학에 상주하게 되었으며 그후 68년에 산업대학장, 69년에 공대학장을 역임하였다.

그후 78년 부총장까지 지냈다.

경희대학교를 그만 둔 것은 문선명목사가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곳의 총장으로 임명되면서였다.

윤세원은 연구소 운영에 대해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구소가 산업계와 대학의 중간에 서서 대학교수들과 산업계의 연계로 산학협동의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그 중에서 연구소와 대학간의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 연구소를 가능하면 연구하려는 대학교수들에게 개방하고 또 연구관들과의 협동연구도 장려하여 대학교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는 연구에 관심을 가질 만큼 성숙하고 발전하지 못했다. **KRIA**

